

우버·리프트, 운전기사 노조 결성 합의

단체교섭 가능, 도어대시 등 배달 기사 제외

캘리포니아에서 우버와 리프트 운전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 교섭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 의회 지도부, 노동조합, 우버·리프트는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앱 기반 운전기사와 승차공유 기업 간 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19년 캘리포니아는 앱 기반 운전기사를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는 AB 5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는 최저임금, 산재 보상,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우버, 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들은 거액을 들여 2020년 주민발의안인 '프로포지션 22'를 통과시켰고, 이로써 운전기사를 다시 계약직으로 분류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것은 오직 캘리포니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적인 합의"라며 "노동계와 업계가 한자리에 앉아 이견을 조율하고, 수십만 명의 운전기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수백만 명

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는 더 저렴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민주당 소속 버피 워스(오렌주)와 마크 버먼(멘로파크)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1340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승차공유 운전기사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권을 보장한다. 다만, 노조 가입을 거부하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돼 있다. 법안은 주 전역에서 75만 명 이상 노동자를 대표하는 SEIU 캘리포니아가 후원했다.

다만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등 음식·식료품 배달 플랫폼 운전기사는 이번 합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기업 역시 2020년 Prop 22 통과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투입했던 주체다.

우버와 리프트는 당초 AB 1340에 반대했으나, 이번 합의와 함께 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SB 371 법안도 포함되면서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다. SB 371은 승차공유 운전기사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리토스 스포츠 공원 심야 총격 2명 사망



▲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경찰 조사관들. 사진=유튜브 캡처

뉴 19700블럭에 위치한 세리토스 스포츠 콤플렉스 공원 남쪽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성인 남성 2명이 숨졌다.

이번 사건은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린 사건이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세리프국은 당시 주차장에 다수의 차량이 있었으며, 어느 시점에 약 20-25발의 총성이 울린 뒤 차량들이 일제히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 영상을 확보한 KTLA에 따르면 용의자는 여러 명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당국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LA 카운티 세리프국(LASD)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2시30분경, 블룸필드 애비

흠디포 600번 털어 1,000만불어치 훔쳐

남가주 71개 매장 노린 사상 최대 조직 절도, 14명 체포

남가주 수사당국이 흠디포를 겨냥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적 소매 절도 사건과 관련해 1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9명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남가주 여러 카운티에 걸쳐 71개 매장에서 600여 건의 절도를 저질러 피해액이 1천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는 타잔나에서 '아리아 도매상'을 운영한 데이비드 알이다. 그는 음모, 조직적 소매 절도, 대규모 절도, 장물수수, 자금 세탁 등 48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재 벤투라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돼 있으며 보석금은 50만 달러로 책정됐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3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벤투라카운티 짐 프라이호프 보안관은 부스터(조직적 절도 실행자)들이 고가의 전기 부품인 차단기, 디머, 스위치



▲ 남가주 흠디포 매장을 둘러 1000만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친 절도단이 참고에 보관해온 장물들. 사진=벤투라 카운티 세리프국

등을 체계적으로 훔쳤으며, 하루 만에 카운티 내 모든 흠디포를 둘러 범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절취품은 쓰레기봉투나 흠디포 박스에 담겨 알의 사업장이나 주택으로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체포된 부스터들은 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수감 중이다.

공개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보안장치를 피해 물품을 절도하는 장면도 담겼다. 흠디포가 고가 제품을 철창 안이나 높은 선반 위에 배치했음에도 범인들은 기어 올라가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산, 마스크 착용 권고

OC 양성률 9.4%서 18.1%로 급등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꾸준히 늘면서 일부 지역 보건 당국은 주민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하고 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의 하수에서 검출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LA 카운티를 비롯해 북가주 베이 지역과 새

크라멘토 권역 등 여러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다.

검사 양성률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주 전체 검사 기준 지난 8월 23일 마감 주간의 양성률은 12.07%로, 7월 26일 당시 6.03%에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LA 카운티의 경우 양성률이 4주 전 8.11%에서 13.44%로 높아졌으며, 오렌지카운티는 같은 기간 9.4%에서 18.1%로 급등했다.



“자동차, 집 보험”

보험료가 많이 올랐나요? 보험 갱신을 안 해주나요?

25년 경험으로 고객에게 맞는 좋은 플랜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3년 고정 이자 4.75%

(*최소 예치금액 \$100,000)

2025년 8월 8일 기준(양후 변동 가능). 3년 내 해약 시 패널티 적용.

LiveWell Guarantee Max, a multi-year guaranteed annuity issued by Midland National Life Insurance Company.

Anaheim Office: 323 N. Brookhurst St., Anaheim

문의 환영

정확하고 친절한국어 서비스

올스테이트는 메이저 회사로서 고객을 우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714.340.6903 / 714.715.8088
YOUNG K. PARK, JD
CA Lic No. 0C71251
YoungPark@Allstate.com

